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상습 체불 사업주 검거

- 일용노동자 임금 870만 원을 미지급한 상습 체불 사업주 체포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청장 이도영)은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하고 장기간 출석요구에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해 온 체불사업주 A씨를 지난달 25일 체포영장을 집행해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과 60범으로 앞서 자택 옷장 안에 숨어있다 경찰에 붙잡힌 전력 있을만큼 상습적 도피 행각을 벌여온 개인업자로, 일용노동자 B씨 외 4명의 임금 약 87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수차례 출석을 요구했음에도 "출석에 응할 수 없으니 잡아가라", "알 거 없다"는 식으로 수사기관을 명백히 기만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이에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A씨가 임의출석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고 체포영장을 집행하여 2026. 8. 25. 전남광주 동구 소재 병원에서 검거하였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체불액 규모와 무관하게 강제수사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체불액이 40만원에 불과한 소액 사건에서도 피의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을 발부·집행한 바 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올해 들어 총 10건의 체포영장을 집행하며 고의·악의적 체불사업주에 대한 강제수사를 지속하고 있으며, 도주 우려 및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있는 경우 구속수사까지 진행하고 있다.

이도영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은 “체불금액이 소액이라도 고의로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영장 집행 등을 적극 활용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악의적 체불 사업주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를 흔들림 없이 이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담당 부서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책임자	과 장	최경선	(062-975-6450)
	노동기준조사2과	담당자	근로감독관	서현진	(062-975-6273)
				이한나	(062-975-6442)